



주 제;	“사랑도 하나.”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2007년 6월 3일
복음 묵상:	[요한 16,12-15]	[잠언 8,22-31]	[로마 5,1-5]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은 결국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신비입니다. 성부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여 외아들을 주기까지 하셨으니, 인자를 믿는 이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요한 3,16)하여 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인간을 향한 극진한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십니다. 따라서 삼위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시고, 세 가지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동 김도겸 신부님강론중에서)

+ 복음 [요한 16,12-15]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 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 올 일들도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예수성심 성월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



예수성심 성월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응답의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며 보속과 희생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써 첫째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예수성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기에 우리의 보속과 희생의 실천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6월 예수성심 성월을 맞아 나의 삶 안에서 예수성심께 다시금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 점은 없는지 반성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예수성심을 위로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묵상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예수성심의 뜻대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이다.